서원문화 현대적 재해석, 전세대 즐기는 곳으로

광주 월봉서원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
마을·지역 아우르며 맞춤형 교육 창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꼬마 철학자…', '선비의 하루' 등 진행

올해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월봉서원은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등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 제공〉

오늘날 서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어떤 이는 문이 굳게 잠겨 있고, 담장이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 한마디로 박제된 옛 유적쯤으로 치부하는 게 서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정형화된 그런 서원 이미지를 깬 곳이 있다. 옛 선비정신을 모티브로 오늘날의 문화와 끊임없이 융합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곳이다. 바로 광주 광산구 광산동에 있는 월봉서원.

이곳에서는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선비의 하루', '살롱드 월봉', '월봉 로맨스' 등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근 월봉서원이 2020년 지역문화대표브랜드(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비밀의 서원, 월봉서원'. 광주 끝자락에 있는데다 서원이 위치한 곳도 마을 끝에 있어 '비밀의 서원'이라는 상징적인 수사가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이번 대표브랜드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발전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월봉서원은 서원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세대가 즐기는 맞춤형 교육문화 콘텐츠를 창출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마을과 지역을 아우르는 전통선비문화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점도 이목을 끌었다.

문체부는 선정 사유에 대해 "다양한 연령대 참여가 가능해 지역브랜드로서 상징성과 독창성이 돋보인다"며 "전문성을 지닌 관의 운영과 지역민의 참여가 탄탄한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월봉서원은 16세기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 고봉(高峯)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1868년 대원군 서원철폐령으로 문을 닫았으나 이후 1941년 빙월당을 새로 짓고 서원의 모습을 다시 갖추었다. 현재 고봉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 춘·추향사제를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한다.

월봉서원의 브랜드화 과정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문화재청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선정돼 5년간 지원을 받았다. 일몰제로 지원된 까닭에 이후로는 자생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선비복체험 장면

지금의 월봉서원이 전국적 인지도를 갖추게 된 데는 백옥연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문화재활용팀 팀장(전문위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 201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백 팀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향교서원문화재사업'에 참여해 3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3년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상을 받았다.

수행단체와 전문가의 열정과 주민들의 협업, 문중들의 관심 등이 어우러져 가치화·브랜드화 사업은 날개를 단 것이다. 이후 월봉서원 프로그램은 문체부의 '지역전통관광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됐다.

올해는 월봉서원이 진행했던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선비의 하루', '살롱드 월봉', '월봉 로맨스' 등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성과 확장성, 브랜드 가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 최초 '코로나 시대 이후 문화재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양서원(광산구 월계동)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용아 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 한옥 등을 묶어 종가 고택사업도 진행중이다.

백 전문위원은 "이번 성과는 수행단체와 마을 주민, 문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협력해 얻은 결과"라며 "향후 서원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재사업이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내 생각에 애통의 시가 탄생했다

정진홍 의학박사 '소리가…' 내

7년에 걸친 투병생활 끝에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시·산문집을 발간한 의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시인인 정진홍 의학박사는 최근 '소리가 그립다'(시와사람)를 펴냈다.

작품집에는 작년 5월 아내가 떠난 후 탄생한 시가 담겨 있다. 시인 스스로 "번민과 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표현하듯 각각의 시가 주는 울림은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이번 작품집은 "시와 산문으로 지나온 날에 대한 콤마 찍기"로 규정된다. 그러나 글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작품을 쓰고 발간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게 삶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구름 너머 하늘나라에/ 그대가 있네/ 구름 아래도/ 그대가 서 있네/ 나는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말을 하네// 집 앞 산 등성이 위로/ 그대가 가고 있네/ 눈물 머금은 내 눈에서/ 그대 모습이 출렁이네/ 흐르는 눈물에/ 수많은 그대가 보여도/ 내 부름에/ 대답이 없네"

위의 '눈물'이라는 시는 아내가 떠나고 난 후, 문득문득 뇌리에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눈물을 머금은 화자의 눈에 비치는 아내의 모습은 애처롭고 안타까운이미지로다가온다.

한편 시와 달리 산문 31편은 지난 시절 살아오며 겪었던 큰 사건에 대한 회상과 의미 등을 담고 있다.

"철없는 아이로 태어나 전쟁이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태평양전쟁을 넘긴 이후로 빨치산의 습격, 동족 간의 참혹한 6·25 전쟁, 4·19학생민주혁명, 5·16군사혁명, 12·12군사쿠데타, 월남전 참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대사건의 연속 가운데서도 용케 잘 견뎌 왔구나 하는 된 숨소리가 나온다."

특히 산문 뒷 부분 '나의 5·18'이라는 부제가 붙은 11편의 글은 당시의 비극이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는가를 되돌아본다.

한편 정진홍 시인은 시집 '강물은 그 끝이 있을까', '도시공원'과 의학에세이 '별들도 이런 병을 앓았다', 평론집 '죄인이 로소이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곡가와 함께 부르는 우리 가곡'

한지영·윤교생 작곡가 초청
14일 광주예총 '우리가곡부르기'

한지영 작곡가

윤교생 작곡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31회 공연이 14일 오후 7시 광주예총회관 지하 1층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지영, 윤교생 작곡가를 초청해 '작곡가와 함께 부르는 우리가곡'을 주제로 진행하며 서정적이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작곡가의 곡을 집중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배우는 노래로 한 작곡가가 나옹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청산은'을 함께 부른다.

이어 한 작곡가의 '내 마음의 천사',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꽃 그림자', '꽃밭의 아버지', '마음 하나' 등을 부른다.

윤 작곡가의 곡 '아름다운 이름 하나', '간이역에서', '그대의 고운 노래는', '옛 그리움', '겨울 나비', '찔레꽃 피는 산길' 등도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추억의 노래로 '섬집아기', '푸른 잔디', '그 집 앞', '장안사'를, 정다운 노래로 '내 사랑 망초여', '별을 캐는 밤' 등을 들려준다.

사랑의 노래로는 '압해도', '황혼의 노래'를 선보이며, 시낭송 시간에는 남신이 자작시 '첫 여름 비가 내리다'를 낭송한다.

무대에는 이길호·서옥주·정인숙·김종석·조성식·기세관·서애숙·나인희·심옥효·박화자·김종례 등이 오른다. 무료관람. 마스크 착용 필수.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산문학 대상 시조부문에 광주 출신 이송희 시인 선정

현대시 부문 대상 조용미 시인

제20회 고산문학대상에 광주 출신 이송희 시인이 시조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집은 '수많은 당신들 앞에 또 다른 당신이 되어'(시인동네)이며 상금 1000만원.

고산문학축전운영위원회는 고산 윤선도의 선구적인 시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 중인 '고산문학대상' 올해 수상자로 시조 부문에 이송희 시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현대시 부문 대상(상금 1000만원)에는 조용미 시인이 뽑혔으며, 수상작품집은 '당신의 아름다운'(문학과지성사).

이 시인은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환절기의 판화', '이름의 고고학' 등의 작품집 등을 펴냈고 가람시조문학 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경북 고령 출신의 조 시인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한길문학'으로 등단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나의 다른 이름들' 등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김달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미등단 문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제로 바뀐 '고산문학대상 신인상'은 현대시 부문 김일하의 '먼지구름'이 시조 부문에 장수남의 '격렬비열도'가 수상작으로 당선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9일 고산의 고택이 있는 녹우당(해남읍 연동리 고산유적지)에서 열린다.

이송희 시인

조용미 시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통)
인삼·벌꿀·홍삼·생약초즙·붕어즙·장어즙
닭발즙·칡즙·포도즙 각종고 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명품크리닝 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니커즈·운동화·가방·카페트 염색, 복원, 수선일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가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사랑방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본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기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 (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